

사설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개혁추진위가 향후 해 나갈 사업의 첫째가 종단의 교육기관을 감독 평가, 둘째가 교육기관별 위상을 점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 셋째 교육체계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수립, 넷째는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체계 수립 등이다. 총무원과 교육원 그리고 교육관련 스님들이 망라되어 조직을 구성, 전교육기관의 체계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니 뜻이나 다름없는 일로 여기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전 불교계가 어떠한 일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단 내외의 사정으로 인해 비록 소규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행이다.

생각해 보면 삼국시대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종교인 불교는 근세에 들어 변화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관주도권의 싸움 끝에 지쳐 있다. 그럼에도 산중 한켠에서는 눈부른 남자들이 정정하고 청신한 기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중의 교화를 담당하는 승가는 수행의 힘 못지 않게 승단 내부의 조직과 수도인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다. 출가집단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관행과 규범을 떠나서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내적 동력의 결속력이 없으면 하나의 집단-승가라는 말이 바로 그 공동체를 말한단다- 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

가장 과격적인 우상파괴적 일탈을 가르치는 듯한 선종에서 청규를 통해 수행인을 규율하고 통합하려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결속은 이념과 행동양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덕목이고, 그런 점에서 승가는 이제

체계적 승려교육 의무화돼야

못해 왔다. 그 까닭은 여럿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부대중의 핵심인 승가가 일관된 이념과 사회적 의식으로 결속하지 못했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비구와 대처의 길고도 오랜 싸움은 정치적 판단과 협력을 받아 비구의 승리로 굳어졌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명분이야 어찌됐든 불교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손에 맡긴 비극이었다. 가까이 10.27 법난 또한 승려들이 굳건한 통합과 종교적 결속을 통해 사회정치적 위상을 과시하지 못한 수모로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시대의 불교는 전통의 재해석과 자기혁신을 통해 나름의 '양식'과 '이념'을 수립하면서 불교의 중심인 승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조선조 후기 이후의 지리멸렬과, 일제시대 이후의 자기말락, 그리고 해방 이후의 오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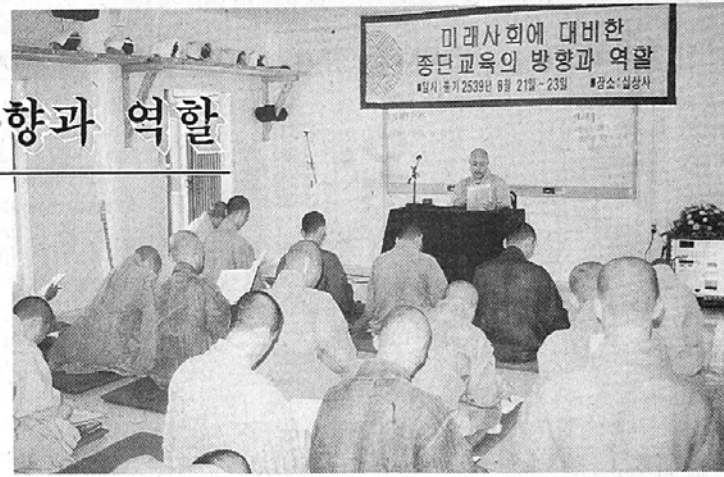
초월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기초덕목으로 지하하도록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는 역경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과감한 재인식이 들어있어야 한다. 당대 大衆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지 않을 때 어떤 종교도 이념도 생명의 자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정말이지 절실한 것이다. 승가 교육의 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를 양성하며, 그를 통해 근세 천년 이래 잠들어있는 불교를 다시 일깨우는 과업이 이곳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다운 승가교육의 확립이아말로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명심하자.

“사찰 관람료 30% 교육예산으로...”

선우도량 9차 수련결사
미래사회 대비한 종단교육 방향과 역할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참석스님들은 지방·중앙승가대, 기초선원, 동국대 등 각기 본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려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충실도를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을 통한 올바른 승가상 정립과 승풍진작이라는 과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며 승가교육문제를 집중 다루는 선우도량은 제9차 수련결사의 주제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종단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잡았다.

지난 21~23일까지 실상사에서 실시된 이번 수련결사는 선우도량과 교육관계자 스님 50여명이 참석해 각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결사에서는 △각 교구별 교육위원회 구성, 폐지된 사찰관람료

30%(공동예치금)를 교육예산에 활용(현승스님) △대학에서도 포괄 제도화, 강원대 대한 재정지원 강화(지운스님) △중앙승가대의 장단기 발전계획(금정스님) 등이 제시됐다. 특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박세일씨가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동령의 신교육 구상'을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실시 2시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번 결사에서 발표된 각 발제와 함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단 승가교육의 당면과제

종단교육의 성패가 어느 한가지 요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 관리문제, 각급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육원이 종단 교육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가동되



현승스님 교육담당금 규정을 신설하여 본말사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부담금 제도를 확립해야

지방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

강원(지방승가대)은 초발심 수행자의 모임으로서 평생 승려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강원의 기능축은 계율과 교법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계·정·혜 삼학이며, 강원의 발전방향 또한 이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



지운스님 정의 혼합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 강원은 결제 해제 구분없이 포상을 여법히 시행해

중앙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

중앙승가대학의 지향점은 전통적인 승가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체계를 섭렵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불교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자질을 연마하는 교육을 위해 현재의 교과목과 학사과



금정스님 승가대학원 신설, 불교사회 교육원 운영, 불교관련 연구소의 활성화로 국제적인 불

교구 교육위 구성...예산확보 관건

고 지방차원의 교구별 교구교육위원회 구성과 지방과 중앙교구간의 밀접한 이해·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구총회법에 의거 본사소임자 4명, 말사주지·작성교구위원 4명, 교육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폐지되는 사찰관람료 30%(공동예치금)를 교육예산에 활용하고, 말사에 교육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교구

할 것이다. 종단적 차원의 교수인력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리도 하루빨리 선결되어야 할 요건이다. 전통강원의 전장제도 활성화와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인 각종 학원이나 울원, 승가대학원 이수자와 석사, 박사스님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의 교수양성제도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행·교육·포교등 각종 사원이 기재되는 교육카드제도 확립돼야 한다. (선우도량 사무총장)

'강원' 명칭회복·간경수행 활성화

이라는 이름은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승가공동체와 수행체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 체계속에서만만이 출가정신의 함양과 불교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간경(看經)의 수행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강사와 학원이 수행적 관계에서의 문답식의 강의역시 필수적인 요소다. 강원의언어 형식은 비유와 부

야 한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강원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4대 사찰로 강원대 통폐합될 경우 문제점은 많다. 학원의 평준화와 강의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있으나 강원대라는 본사는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다른 본사는 대중의 수가 극히 줄어들어 균형적 발전이 어렵고 문답식 강의 발전 가능성이 저하될 것 같다. 강원대 강원의 언어 형식은 비유와 부

교과·학사과정 개편 연구기능 강화

정을 대폭 개편해 기초강원 및 기초선원의 장점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불교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대학원을 설립해 보다 깊이는 불교학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불교사학, 역경학과 등 불교 독자적인 분야를 선정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며

교학교류 및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결코 강원대의 역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을 상호교환하거나 교환학제제를 적용 강연교육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교재 공동개발 등 기본 승려교육도량으로서 내적외적 체계를 갖춘 예정이다. (중앙승가대학 기획실장)

현대만평



'깊은 소리'를 내려면...

토론요지

“중앙·지방승가대·기초선원 균형발전안 모색하자”

현승스님이 발표한 '승가교육의 당면과제에 대하여'에 대해 종성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논평을 통해 교구교육위원회 구성, 교구 교육담당금 신설, 전 승려의 교육인사 카드제실시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교역자 양성에 있어 처우나 법적불수 등도 보완해 관리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지방승가대와 더불어 동급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과의 평준화문제(교수진의 확보, 교과과정, 교육내용)도 함께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강원'이란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운스님과 '지방승가대학'이란 명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교육원 스님들과의 입장대립이 이번에도 첨예하게 나타났다. 지운스님의

'지방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한 논평에서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방승가대의 특성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지만 교과내용 및 과정 등의 현대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정스님이 발표한 '중앙승가대의 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평자 지훈스님(조계종 중앙총회위원)은 "중앙승가대학이 승가의 모든 교육을 통괄하며 그 역할을 다하

겠다는 의지는 무리"라 지적하고 "불교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수학 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해야 전문화 다양화 정보화의 미래세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정책적 투자가 요망되는 이 시점에 종단예산의 3분의 1(20억 이상)씩을 몇년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수해 나가는 점도 지적했다.

전체토론에서는 교육원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앙승가대의 비대화문제·비구 비구니 분리 교육실시여부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승가대, 기초선원, 동국대 등 승려 기본교육기관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살려 승가상을 정립하고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숙·한명우 기자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이어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스명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高문 임명. 현 제임중
1985년 김비식품 연구 학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원로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